

이슬람은 무엇인가?



준비자
후리에 마르트 교사





터키 공화국 터키
종교부

출판 번호: 1923

국민책: 495

출판 감독: 파티흐 쿠르트 조교수

출판 코디네이터: 유누스 욱셀

준비자 후리에 마르트 교수

옮긴이: 손태성

수정: 제이넵 알테미르 - 테리야 손

그래픽 디자인: 알리 촌크 - 우우르 알튼토프

인쇄: Epa-Mat Bas. Yay. Prom. San. ve Tic. Ltd. Şti.

+90 312 394 48 63

초판, 앙카라-2020

위원회 결정: 01.12.2020/666

2020-06-Y-0003-1923

ISBN: 978-625-7779-74-6

인증 번호: 12930

© 터키종교부

연락처

종교출판 총국

외국어 및 방언 간행부

Dini Yayınlar Genel Müdürlüğü

Yabancı Dil ve Lehçelerde Yayınlar Daire Başkanlığı

Üniversiteler Mah. Dumlupınar Bulvarı

No:147/A 06800 Çankaya/ANKARA

전화: +90 312 295 72 81

팩스: +90 312 284 72 88

이메일: yabancidiller@diyanet.gov.tr

목차

제 1 장

종교 믿음의 기본(본질)

머리말.....	5
인간.....	9
종교.....	11
이슬람.....	13
이만(믿음).....	15
알라에 대한 믿음.....	17
천사들에 대한 믿음.....	19
성서들에 대한 믿음.....	21
마지막 성서: 꾸란.....	25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	27
마지막 예언자: 예언자 무함마드 (그분에게 알라의 평화와 깃들기를).....	29
내세에 대한 믿음.....	31
정명에 대한 믿음.....	33

제 2 장

숭배행위의 기본 원리

숭배행위에 대한 인식.....	39
칼리마 알-샤하다 (신앙의 증언).....	43
청결.....	45
우두 및 구슬.....	47

쌀라(예배)	49
단식	53
자카트(회사) 및 싸다까(자선)	55
하즈(성지순례)	59
꾸르반(희생)	61
두아(기도)	63

제 3 장

윤리 원칙

이슬람은 훌륭한 윤리의 종교이다.....	67
이슬람은 공정의 종교이다.....	69
이슬람은 평화와 복지의 종교이다.....	71
이슬람은 지식과 지혜의 종교이다.....	75
이슬람은 모든 일에서 친절을 명한다.....	79
이슬람은 자비의 종교이다.....	81
무슬림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	85
무슬림은 가족을 잘 대한다.....	87
무슬림은 환경 친화적이다.....	89
무슬림은 절대 박해하지 않는다.....	91
무슬림은 정직하고 솔직하다.....	93
무슬림은 창조자에게 감사하는 중이다.....	95
무슬림은 실수를 저지르면 용서를 구한다.	97
무슬림은 천국에 데리고 가는 길을 찾는다.....	99
무슬림은 지옥에 데리고 가는 길을 피한다.....	103

머리말

이슬람이란 사람이 어떤 강요없이 자신의 선택과 바람으로 진실성 있게 알라에게 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명령과 금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락이다. 완벽한 신념, 숭배 및 윤리 체계를 가진 이슬람은 예언자 아담과 함께 인류에게 도달하기 시작한 마지막 계시이자 계시의 완전한 형태이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할 것이다.

이슬람의 모든 원칙은 알라께서 만드신 완벽한 균형과 인류의 보호에 기본을 둔다. 이슬람의 목적은 인간이 자기 자신, 알라(하나님), 사람들과 자연속의 생물 및 무생물과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평화나 사회적 평화가 모두 제공되고 세상은 정의와 자비가 우세할 것이다.

이슬람은 꾸란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인류에게 제공되는 믿음, 숭배 및 도덕의 원칙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의 길을 보여준다. 그가 구상한 이상적인 삶의 모델로 지혜와 마음을 사용하여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을 위해서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기본들을 채택하고 이러한 기본에 부합하는 예배 의식을 갖고 높은 윤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무으민(진실로 믿는자)은 이슬람 신념의 기본들을 채택하고

믿고, 믿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그의 삶에 반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으민은 그의 믿음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예배하고 좋은 도덕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도덕에 부여하는 가치인 이슬람의 주된 목적은 믿음과 믿음을 가지고 따라 도덕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건강한 사회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종교의 기본 믿음, 예배와 도덕을 알기 쉽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공개하려는 이 작품은 이슬람을 신뢰할 만한 지식과 건강한 관점으로 이해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종교부 출판물 중에서 하디스와 함께 보는 이슬람, 이슬람 신학, 터키 디야벳 재단(TDV) 이슬람 백과사전, 터키종교부의 꾸란 주해와 같은 기본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된 이 작품이 이슬람의 신념 체계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들면서 숭배에 대한 인식을 도덕적 원칙으로,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만들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지평이 열리기를 바란다.

제 1 장
믿음의
기본(본질)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신
후 그의 위치를 가장 낮게 하였노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제외되어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보상이 있노라."

(꾸란)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존재이다. 지적이고 강력하며 의지가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의식적인 존재로서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인간은 지구와 하늘의 유일한 소유자인 전능하신 알라에 의해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알라께서는 인류에게 균형 잡힌 몸매, 활력을 주는 영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신, 삶을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이다.

인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고 완벽한 육체를 주고 먹이고 보호하고 온갖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은 알라이시다. 전능하신 알라께서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선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1 틴 장, 95:4-6

(이 작품에서 꾸란의 한국어 번역은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출판청의 후원으로 최영길 이슬람학사의 성꾸란 한국어 번역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존재 이유는 종으로서 책임을 지고 지구를 재건하고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가 최초의 인간인 예언자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와 함께 시작되었다. 추후 인류는 서로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국적으로 나누어졌다.

인간은 다른 존재에 비해 예외적으로 우월한 자질, 특권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 덕분에 인류는 선을 구하고 삶에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악을 원하고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인류는 때때로 인내심 있고 부지런하고 이타적이며 평화롭고 공정한 태도로 행복한 세상을 구축한 반면에 때때로 무지하고 이기적이며 야심적이고 성급하고 배은망덕한 태도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알라께서는 축복과 도움없이 인간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 알라께서는 삶의 시험에서 인간을 지원하고 그분의 예언자와 성서들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창조하고 자비로 대하는 인간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과 진리를 가르치고 무엇이 나쁘고 추하고 잘못되었는지 이해시키는 질서를 보내셨다. 인간에게 지상 여행을 인도하고 내세의 구원으로 이끄는 방법인 이 질서는 "종교"이다.

종교



"하나님의 종교는 이슬람 뿐이다."²

(꾸란)

종교란 알라께서 예언자를 통해 인류에게 보내신 신성한 율법이다. 이 율법은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인류를 자신의 선택으로,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행복으로도 인도하기 위해 보내졌다.

종교는 최초의 인류와 함께 존재했으며 최후의 날까지 존재할 것이다. 때문에 최초 인간이자 최초 예언자는 아담이고 마지막 예언자는 무함마드 무스타파(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며 세상의 마지막날까지 다른 예언자는 안 올 것이다.

인류는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전능한 존재를 알고 창조의 목적을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나? 살고 있는 세상이 창조된 이유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나? 옳고 그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죽음 후에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한다.

2 알루 이므란 장, 3:19.

종교의 원칙과 규칙을 전능하신 알라께서 결정하신다. 알라께서는 이 규칙을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통해 보내신다. 계시는 알라에 의해 예언자에게 보내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지식, 신성한 메시지,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진리를 의미한다. 예언자들의 의무는 이 진리 즉 종료의 원리를 인류에게 전하는 것이다.

인류가 스스로 정한 질서, 결정한 법과 제도는 결코 종교로 간주될 수 없다. 또 알라에 의해 보내졌지만 인류에 의해 변경된 종교 또한 "참된 종교"라는 특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생활 모델을 제공하면서 지혜와 마음을 사용하여 자신과 다른 생물들을 위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인류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식의 원천은 종교이다.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에 올 모든 인류에게 보내진 유일한 종교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이슬람이다.

이슬람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신앙으로 만족케 하였노라."³
(꾸란)

이슬람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평화, 평안과 복종이다. 이슬람이란 사람이 어떤 강요없이 자신의 선택과 바램으로 진실성 있게 알라에게 향하는 것과 그분의 명령과 금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슬람을 종교로 받아들이고 그의 규칙에 순종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한다.

이슬람은 전능하신 알라의 의해 마지막 예언자 마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를 통해 보내진 마지막 종교이다. 이 종교는 심판의 날까지 유효될 완벽한 믿음, 예배 및 도덕 시스템이다. 알라께서 이슬람 이전에 보내신 종교들이 인류에 의해 타락해서 신성한 규칙을 인류에게 상기시킬 목적으로 이슬람을 보내셨다.

이슬람이 다른 종교와 차이점은 모든 인류에게 보내진 것과 세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3 마이다 장, 5:3.

이슬람교의 예언자는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며 성서는 꾸란이다. 꾸란은 아담과 함께 인류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계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형태이다. 이제 이슬람 다음의 다른 종교, 예언자 무함마드 다음의 다른 예언자, 꾸란 다음의 다른 성서는 안 올 것이다.

이슬람의 모든 원칙은 알라께서 만드신 완벽한 균형과 인류의 보호에 기본을 둔다. 이슬람의 목적은 인간을 자신, 알라와 타인들과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적 평화가 모두 제공되고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가 우세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믿음, 숭배행위 및 도덕 원칙으로 세 가지 주요 제목으로 논의된다.

이만(믿음)



**"내 생명이 그분께 달려 있는 알라께 맹세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 믿는자가 될 수 없다."⁴**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슬람교에 입교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만(믿음)은 알라의 존재와 유일성, 천사들, 내려주신 성서들, 보내신 예언자들, 내세와 정명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무으민(진실로 믿는자)"은 그 모든 것을 믿고, 믿음을 말로 표현하고 믿는 것을 삶에 옮기는 사람이다.

이만(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안전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신자)은 알라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그의 삶에 의미와 평화가 온다. 자신감(신뢰)이 강화되고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결단력과 확고함을 얻는다.

믿음은 인류를 나쁜 말과 행동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그를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것과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삶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4 아부 다우드, 아답, 130. [Abu Dawud, Adab, 130]

그의 가족, 동네, 도시, 국가 및 전 세계에 선을 전파하고 악을 예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슬람에는 여섯 가지 기본 믿음이 있는데 이것들은 알라, 천사들, 성서들, 예언자들, 내세와 정명을 믿는 것이다.

알라에 대한 믿음



**"누군가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
(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알라의
사도라는 것을 증언하며 마음으로 인정하면
알라께서 사람에게 지옥을 금하신다."⁵**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알라(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슬람의 기본 원리이다. 전능하신 알라께서는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고, 원자에서 은하에 이르기까지 존재의 전 세계를 창조하고 지배하시는 분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살게 하며 그들이 죽고 난 뒤에 부활시키실 분은 바로 그분이다.

알라께서는 유일하시며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은 태어나지 않으셨고 누구에 의해 태어나지도 않으셨다. 모든 존재가 그분을 필요로 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분과 대응한 것도 비슷한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분은 과거와 미래의 어떤 창조물과도 비슷하지 않으시다. 절대적인 힘, 능력, 권위와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알라이시다. 그분은 살아 계신다. 모든 생물들은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알라께서는 결코 죽지 않고 남으실 것이다. 그분의 존재는 시작이 없는 것처럼 끝도 없다.

5 부카리, 일림, 49. [Bukhari, 'Ilm, 49]

알라께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고 듣고 모든 것을 가장 자세하게 아는 분이시다. 그분께 감춰진 것, 그분께 어려운 것, 과거 또는 미래에서 그의 지식과 소원 외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분은 무한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계신다. 종들을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종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을 돕고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다신교, 부인 그리고 불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궤멸시키고 처벌하시는 분은 또 그분이시다.

이슬람은 "타우히드(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의 종교이다. 타우히드란 알라를 믿고 그분께 아무 것도 연관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라의 존재와 단일성 즉 그의 동반자 또는 그분과 동등한 존재가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한다. 그분의 모든 이름, 속성 및 독특한 특징으로 그분을 알고 순종한다. 이 확언을 말로도 표현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무는 자신을 창조하고 살게 하고 온갖 축복을 다 주시는 알라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라에 대한 믿음은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세지이다.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위이다. 그것은 또한 전능하신 알라께서 종들에 대해 가지신 권리이다.

알라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올바르게 존경하고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의 도움만 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알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항상 자신을 보고, 듣고, 모든 활동들을 알고 계시며 언젠가 그를 심판하실 것임을 알고 산다. 그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모든 의도와 바람에 대해서 알라의 뜻을 우선으로 둔다. 믿음으로 평화에 이르고 주변에게 평화를 심어준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



**"알라(하나님)와 천사들과 성서들과
예언자들과 내세를 부정하는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리라."⁶**
(꾸란)

인류의 역사는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선과 악의 투쟁은 대부분 이 존재들을 통해서 이야기된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의 얼마 정도가 사실인가? 오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님이신 알라께서 보내신 마지막 종교가 이 주제에 대해 신뢰할만하고 참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실은 이슬람교에서도 빛에서 창조된 천사의 존재를 믿는 것은 기본 믿음 중 하나이다.

이슬람에 따르면 천사들은 알라의 다양한 임무를 완수하고 그분의 명령에 의문의 여지없이 순종하는 선한 존재들이다. 천사들에게는 성별이나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인간이 가지는 특징이 없다. 꾸란의 구절에는 날개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여성이나 새와 유사하게 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지어 꾸란은 천사를

6 니싸아 장, 4:136.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들을 "라흐만(가장 은혜로우신 분)의 종"으로 특정짓는다.⁷

천사들은 그들 사이에서의 계층 구조와 의무에 따라 다양한 그룹으로 나뉜다. 네 명의 위대한 천사는 알라께서 예언자들에게 계시를 전하도록 위임하신 지브릴(가브리엘), 양식과 자비의 천사로서 자연의 사건을 감독하는 미카일(Michael), 죽음의 천사 아즈라일(아즈라엘) 그리고 종말을 알릴 수르(나팔)를 불 이스라엘이다. 또한 권좌를 들고, 인간을 보호하고 기도하며, 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기록하고, 무덤에서 첫 심문을 하고, 천국과 지옥에서 봉사하는 천사들도 따로 있다.

천사들도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전능하신 알라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들은 알라께 절대 반대하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허락과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은 알라께서 알리신 것 이상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결코 그들은 신성, 신이나 지배력으로 간주될 수 없다.

알라를 진심으로 따르는 무슬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즉 가으입 (ghayb)을 믿는다는 것이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도 이것의 일부이다.

성서들에 대한 믿음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으며 이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서 경고자로서
그 곳에 보내셨도다 또한 그들과 함께
진리의 성서를 보내어 이로 하여금 그들이
달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더라."⁸

(꾸란)

성서들은 전능하신 알라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또 그분의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말씀, 명령과 계시가 새겨진 형태이다. 알라의 말씀이 다른 말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알라께서 그분의 종들보다 우월한 것과 비슷하다. 알라께서는 성서를 보내심으로써 가장 귀중한 존재로 창조한 인간을 대담자로 받아들이시고 삶의 시험에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또 인간에게 진리를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셨다.

역사 초기에 일부 예언자들에게 "사히파(sahifa; 페이지)"라는 작은 책들이 보내졌다. 알라에 의해, 예언자 아담에게는 10 장, 예언자 쉬트(세트)에게는 50 장, 예언자 이드리스(에녹)에게는 30 장, 예언자 이브라힘(아브라함)에게는 10 장의 사히파가 보내졌다.

8 바까라 장, 2:213.

나중에 차례대로 네 권의 성서가 보내졌다. 예언자 무사(모세)에게는 토라, 예언자 다우드(다윗)에게는 시편, 예언자 이사(예수)에게는 성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자 무함마드 무스타파(그분에게 알라의 평화와 깃들기를)에게는 꾸란이 보내졌다. 심판의 날까지 유효하고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마지막 성서는 꾸란이다.

무슬림들은 모든 성서들이 알라로부터 내려지고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과 진실인 것을 믿는다. 그러나 이 명령은 성서들이 변질되거나 변하지 않은 형태의 경우 유효하다. 따라서 무슬림은 사히파(페이지)와 성서들을 알라로부터 내려진 형식 그대로의 상태를 믿는다. 또 꾸란 이외의 다른 성서들, 즉 토라, 시편 및 성경이 인간에 의해 변경되고 원래의 원본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무으민에게 계시에 대해 항상 세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요구한다. 토라나 성경으로부터 온 지식을 만났을 때 이 지식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말하기 전에 꾸란을 참고하는 것을 필수이다. 꾸란이 제공하는 지식과 모순되지 않고 이슬람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정보가 사실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꾸란의 원리와 보편적 메세지와 모순되는 지식이 알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약간의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보내진 성서들을 변조한 것이다. 과거에 성직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쓴 것들을 알라의 계시로 보여줌으로써 무고한 백성을 속이고 성서들의 순수성을 손상시켰다. 본문과 내용 모든 관점에서 가장 사소한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전해왔으며 심판의 날까지 원래의 존재를 보존할 유일한 성서는 꾸란이다.

성서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란을 신성한 지침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라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수용하는 만큼 그것의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성서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읽히고, 이해되고 삶으로 옮겨지기 위해 보내졌기 때문이다.

마지막 성서: 꾸란



**"나는 당신에게 어떤 것을 남기는데,
당신이 그것을 안고 나면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그것은 알라의 책이더라."**⁹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와 깃들기를))

꾸란은 전능하신 알라께서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 인류에게 전한 마지막 계시이자 성서이다. 알라께서 친히 그것을 보내셨으며 심판의 날까지 친히 보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¹⁰ 꾸란이 다른 성서와 구별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것이 한 지역이나 종족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내졌고 결코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이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꾸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꾸란은 이슬람교의 주된 원천이다. 이슬람은 꾸란이 내려진 날에 인류에게 전달되기 시작했으며 꾸란의 계시가 끝났을 때 완성되고 완벽함에 이르렀다.

꾸란은 알라로부터의 충고이며 마음을 위한 치유이다. 꾸란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자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의

9 무슬림이 전함, 핫즈, 147. [Muslim, Hajj, 147]

10 히즈르 장, 15:9.

가장 큰 기적이다. 믿는자들이 함께 짊어 잡아야 하는 아주 튼튼한 밧줄이자 인도의 근원이자 자비의 원천이다.

인류를 위한 현세와 내세의 행복은 꾸란에 숨겨져 있다. 인류를 위해 합의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설명, 과거와 미래에 관한 많은 사건의 정보가 꾸란에 있다. 믿음, 숭배행위, 및 도덕의 기본은 꾸란으로 결정된다.

꾸란을 읽고, 읽게 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무슬림에게 책임이자 보상을 받을 행위이다. 물론 꾸란은 단지 읽기 위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보여주고 그의 구절에 따라 삶을 살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꾸란의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삶으로 옮긴 분은 우리 예언자이다. 따라서 꾸란이 비추는 바른 길을 걷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와 깃들기를)의 삶을 모델로 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예언자들을 불신하여 하나님과
예언자들을 이간시키려 하는 자들이 '
우리는 일부를 믿고 일부는 부정하나이다.'
라고 하며 그中间的 길을 택하겠다고 말하더라.
실로 이들이야말로 불신자들이거늘."¹¹

(꾸란)

예언자들은 알라에 의해 선택되고 인류에게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다. 예언자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알라의 축복받은 사도임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알라로부터 전달하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은 이슬람의 기본 믿음 중 하나이다. 그들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점들과 서로 우월함이 있지만, 이슬람에 따르면 믿음에 관해서는 예언자들과 그들에게 내려진 계시는 차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슬림은 차별 없이 모든 예언자들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존경심으로 기억하고 모범으로 삼고 마지막 예언자를 따른다.

11 니싸아장, 4:150-151.

예언자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자 첫 예언자이다. 마지막 예언자는 무함마드 무스타파(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다. 전능하신 알라는 인류를 결코 인도자, 모범자, 지도자나 예언자 없이 떠나지 않으셨다. 이 두 예언자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성서가 보내졌거나 보내지지 않은 많은 예언자들이 거쳐갔다. 모두의 메시지는 동일했다: 알라를 숭배하십시오!

예언자들은 알라의 메시지를 부족함이 없고 더함이 없이 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무가 지식을 전하는 것 즉 "다와(전파,초대)" 만이 아니다. 신성한 지식을 설명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며 인간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예언자들의 의무이다. 이 목표를 이루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알라의 허락으로 기적을 보여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꾸란에서 교훈으로 언급되어 있다.

인간의 지성은 전능하신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창조자의 명령들을 오직 그분이 보내신 사도들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알라의 명령에 순종하고 금지된 것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사람은 예전자의 모범이 필요하다. 성서들을 믿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에게 이 성서가 내려진 예언자를 믿을 필요가 있다.

예언자들은 솔직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적이고 관대하며 죄로부터 보호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예언자)은 인류에게 알라의 구절을 읽고 책과 지혜를 가르치고 그들을 타우히드와 선함으로 초대하고 종교를 부정하는 것과 악으로부터 정화하는 사람들이다. 예언자 사슬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고리는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지막 예언자: 예언자 무함마드

(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예언자여 우리가 그대를 보내매 증인으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경고자로서 보냄이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자로서 불을 비추는 등불로서 보냄이라."¹²

(꾸란)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 무스타파(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알라의 종, 메신저이자 마지막 예언자이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즉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 (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그의 종이며 사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임이 있다.

세상에 자비로 보내진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는 안에 살았던 폭력과 무지의 사회에 자비와 정의를 가져왔다. 23년간의 예언자로서의 과업 기간 동안 인내, 결단력, 믿음 및 자비로 모범적인 이슬람 사회를 건설했다.

우리 예언자 무함마드는 꾸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모든 순간에 반영하는 모범적인 사람이다. 또한 그는 시간과 지역에 상관없이 주변인들 뿐만 아니라

12 아흐잡 장, 33:45-46.

온 세계 무슬림들에게 가장 좋은 모범이다. 그는 예언자가 되기 전부터 메카에서 "무함마드 알 아민(신뢰할 수 있는 무함마드)이라고 알려진 도덕과 미덕의 귀감이다. 그는 성실과 정직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았으며 정의, 인권 및 면책권에 대한 존중, 지식의 가치와 의논의 중요성을 가르쳐왔다.

우리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교우들 즉 그와 함께 살았던 무으민(진실로 믿는자)들로부터 그의 관대함과 자비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배운다. 평생에 한번도 자신은 봉사하는 사람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았으며 누군가가 알라의 범주를 넘었을 경우에 화를 냈다. 이 외에도 모든 사람에게 이해심을 가지고 용서하고 관대하며 품위있는 행동을 보였다. 부드러운 마음, 미소 짓는 얼굴, 신뢰가는 목소리와 고귀한 태도를 가진 독특한 사림이었다.

알라로 가는 길은 우리 예언자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무슬림에게, 현세에서의 평화와 내세에서의 구원을 위한 처방전은 예언자를 사랑하고 삶을 그의 순나(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에 따라 사는 것이다.

내세에 대한 믿음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
(이슬람세)를 바치며 내세를 확신하도다."¹³**
(꾸란)

내세란 세상의 삶 이후에 시작되어 영원히 계속될 삶의 이름이다. 내세에 대한 믿음은 무슬림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이다. 내세에 대한 믿음과 알라(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매우 강력한 연결 고리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세를 부정한다는 것은 시험의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려 내세의 존재를 인류에게 알리신 알라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종말이 일어나고 세상의 끝남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알라의 면전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신성한 정의가 나타나고 선과 악,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정당한 사람과 부정당한 사람 서로서로 분류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완전하게 볼 것이다.

내세에 대한 믿음은 사람의 책임 의식을 발전시킨다.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알라께서 언젠가 인류에게 주신

13 루끄만 장, 31:4.

모든 은혜와 의탁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이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만든다. 이것에 대한 민감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연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무슬림들의 모든 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내세를 믿는 것은 인간의 삶을 숭고한 목적으로 안내하게 하고 올바른 목표를 확고히 함으로써 선에 전념하도록 한다. 원한, 시기, 적의, 증오와 같은 감정을 제거하며 이 감정을 용서, 희망 및 인내와 같은 긍정적인 특징들을 발전시킨다. 삶의 어려움에 맞서 싸울 힘을 심어주고 기다리는데도 때때로 찾을 수 없었던 정의의 추구에 대한 답을 준다.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자주 기억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최선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무으민들 중에 가장 의식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제일 올바른 투자는 천국을 포함한 영원한 땅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조화(까다르)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¹⁴

(꾸란)

정명(까다르)에 대한 믿음은 이슬람의 여섯 가지 기본 믿음 중 하나이다. 이 믿음은 우주 전체에서 선하든 악하든, 참이든, 거짓이든,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유용하든 유용하지 않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알라의 지식, 바램, 힘, 재량 및 창조에 의해 실현된다고 전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인생에서 인류를 초월하고 개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족, 인종, 피부색이나 성별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 이것들은 신성한 결정의 결과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정명"이라고 한다.

반면에 좋은 일이나 나쁜 어떤 사건이 실현되는 데 인간도 몫이 있다. 알라께서는 소유하신 무제한의 재산에서 사람들에게 활동 범위를 주셨고,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주셨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선행을 하거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

14 까마르 장, 54:49

알라의 창조는 사람의 노력과 결정에 따라 실현된다. 따라서 인류가 취한 조치와 선택도 정명의 일부이다.

알라께서는 우주에서 일어날 모든 일이든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알고 기록하신 것이다.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장 자세히 아시는 알라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지식으로 알고 계신다. 그러나 이 상황은 알라께서 우리를 강요하거나 바람이 그 앞에 마른 잎사귀처럼 여기저기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알라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신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도둑질한 사람은 알라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라 전에 형성된 두 가지 선택 중 최악을 선택하여 도둑질을 의도적으로 원하면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선택과 죄의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인간에게 현재와 내세에서 행복 또는 비참함을 가져올 것은 실제로 본인이 하는 일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를 선으로 향하게 하고 악의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수하며 발생한 일을 정명에 돌림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명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단계에서 의탁할 분이 알라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길: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모여도 알라의 뜻을 제외하고는 당신에게 이득을 줄 수 없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모여도 알라의 뜻을 제외하고는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칠 수 없다. 이 주제에서 펜이 제거되었으며(새로운**

것을 쓰지 않는다.) 페이지들이 마른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¹⁵

예를 들어 정명을 믿는 사람은 비가 특정 물리적 상황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비가 오는 것이 자연적 원인의 조합의 결과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슬림은 명백한 이유를 넘어서 알라께서 비를 내리게 하신다고 믿는다. 최종 결정, 명령, 의지 및 창조는 의심할 여지없이 알라의 것이다.

이슬람교에는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거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도 알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함으로써 당신의 일을 알라께 위탁하는 것과 같은 정명의 이해는 없다. 정명에 대한 믿음을 가진 무슬림은 책임을 정당하게 행하며 단호하고 결의 및 인내심이 있다. 모든 것에 대해 물질적, 영적 이유를 의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알라를 신뢰하고 결과를 그분께 맡긴다.

15 티르미지가 전함, 스파트 알-끄야마, 59. [Tirmidhi, Sifat al-Qiyamah, 59]

제 2 장
숭배행위의
기본 원리

숭배행위에 대한 인식



**"이흐산은 마치 그분을 보는 것처럼 알라께
숭배를 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분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당신을 보신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알라께서는 인간을 완벽한 형식으로 창조하셨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봉사하게 만드셨다. 추리력을 갖고 해결책을 만들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의지를 가지는 것과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갖추셨다. 알라께서 인간에게 기대하는 유일한 것은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전능하신 알라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복종하고 그분께 깊이 헌신하고 인간이라는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선악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알라에 의해 알려진다는 것과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믿음과 좋은 품성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숭배행위를 의무적으로 만든다. 실제로 숭배행위란 종이 되는 것의 본질이자 인류 창조의 목적이다. 따라서 인류는

1 부카리가 전함, 타피스르, 루끄만, 31. [Bukhari, Tafsir, Luqman, 31]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주신 알라를 잊지 말아야 하며 숭배하면서 종으로서의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숭배는 전능하신 알라를 필요로 하는 인간이 중재자 없이 직접적으로 그분께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믿음의 기본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믿음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숭배행위를 해야 한다.

이슬람이 명령하고 능력이 되는 모든 무슬림들이 실행할 책임이 있는 기본적인 숭배행위들이 있다. 이것들은 신앙 증언, 즉 알라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과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분의 종이자 사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예배하는 것, 자카트를 주는 것, 성지순례를 하는 것 그리고 라마단 단식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적(파르드) 숭배행위 이외에도 좋은 의도와 성실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숭배의 보상을 얻게 한다. 이 맥락에서 선행을 권장하고 악으로부터 지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지키며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인사하고 사람들을 미소로 응대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과 같은 행동도 숭배행위이다.

배우자, 부모 및 자녀를 위해 선행을 베풀고 친척 및 이웃과 잘 지내며 슬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궁핍한 학생의 비용을 충당해주고 한 노인을 존중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도 숭배행위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게 거래를 하고, 젊은이들을 나쁜 습관의 손아귀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숭배행위이다.

좋지 못한 도덕적 자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나프스(nafs; 욕망, 자아)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주위 사람들을 위해

지내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지내기 쉬운 사람이 되기 위해 세심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승배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승배는 사람을 인간이 가진 약점으로부터 정화시키고 훈련시키며 의도, 의지와 인내를 가르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때때로 예배를 통해 시간 훈련, 단식을 통해 양식의 가치, 핫즈(성지순례)를 통해 평등과 형제애 그리고 자카트를 통해서도 나눔을 배우게 된다. 승배행위들은 언뜻 보기에 특정 규칙과 방식과 형태로 구성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형식들의 배경에는 알라를 향한 사랑, 존경심 그리고 순종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

승배는 또한 이기심, 오만, 망상, 시기, 낭비, 열정, 인색 및 유사한 나쁜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사람을 정화시킨다. 승배는 사람을 교육하고 성장시키며 성숙하게 하며 자신과 사회에 유익한 믿는자가 되도록 도와준다.

칼리마 알-샤하다 (신앙의 증언)



"이슬람은 다음과 같은 5 가지 기둥을
가진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예배하고,
자카트(이슬람세)를 주고, 순례하고,
라마단에서 단식하는 것이다."²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슬람의 중심에는 "타우히드(알라의 유일성을 믿는 것)" 즉 하나인 알라(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원리가 있다. 이 원리의 표현과 무슬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의 표현은 아랍어로 "샤하다", 즉 "아슈아드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드 안나 무함마단 아브두후 와 라술루후" 라는 문구이다. 샤하다는 "나는 알라 외에는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알라의 종이자 사도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구와 함께 사람들이 증언하는 첫 번째 것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것이다. 샤하다를 말한 사람은 알라 외에는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권력과 권세가 없으며 생계와 축복은 알라께만 나오며 오직 그분에게서만 구할 수 있고 오직 알라만을 신뢰할

2 부카리, 이만, 2. (Bukhari, Iman, 2)

수 있으며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과 오직 알라만을 숭배할 것이고 그분께만 보호를 구하는 것을 받아드린 사람이다.

이 증언에서 두 번째로 증언한 것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알라의 종이자 사도이다."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알라의 종이며 인간이다. 예언자 예수가 나중에 신격화되는 상황은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예언자 무함마드는 평범한 종이 아닌 동시에 알라의 사도이다. 그에게 내려진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하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는 항상 알라의 통제와 보호 하에 있다.

청결



"청결은 믿음의 반이다."³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슬람교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물질적, 영적 청결에 부여하는 중요성이다. 물질적 청결은 자신의 몸, 옷, 물건, 생활하는 공간, 환경과 세상을 전체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영적 청결은 영혼을 정화시키고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악의 검음과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슬람은 인체에 속한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실 예절과 청결은 예언자의 가르침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화장실에서 필요를 충족한 사람이 필히 물로 청결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프라이버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을 끼블라의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는 것은 순나(예언자의 관행)이다. 또한 사람들이 오가는 도로, 나무 밑, 그늘, 공원, 해안가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에서 몸의 관리도 특별한 자리를 잡는다. 알라(하나님)의 사도인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3 티르미드, 데아와트, 86. [Tirmidhi, Da'awat, 86]

평화가 깃들기를)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며 머리와 수염을 관리하고 손톱을 깨끗하고 매끄럽게 유지하라고 명령한다. 무슬림은 결코 주변에 악취를 퍼트려서 불평함을 주거나 누추한 차림으로 돌아다니거나 자기 관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슬람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 청결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이목을 끈다. 예배하고 싶은 무슬림은 반드시 "우두(세정)"를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몸 전체를 씻는다는 뜻의 "구슬(전체세정)"을 해야 한다.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깨끗한 흙으로 하는 "타암뭉(대체세정)"도 이러한 세심함의 일부이다.

무슬림은 물질적 청결 뿐만 아니라 영적 청결에도 주의한다. 죄를 참회하고 회개로 정화한다. 잘못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알라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저지른 죄로 돌아가지 않는 무슬림은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깨끗해진다.

영적 청결의 누룩은 훌륭한 품성 속에 숨겨져 있다. 손, 혀, 눈, 귀, 간단히 말해서 전신을, 선한 길에서 사용하고 나쁜 습관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은 영적 청결로 가는 길로 이슬람에서 묘사된다.

우두 및 구슬



**"천국의 열쇠는 예배이고,
예배의 열쇠는 우두이다."⁴**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슬람에 따르면 예배를 하기 위해 알라 앞에 설 사람은 우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청결해야 하며 스스로 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화의 중심에는 우두(wudu; 세정)와 구슬(ghusl; 전체 세정)이 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우두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두를, 성관계 또는 정액 분비물로 인해 불결함인 경우(자나바=janabah) 구슬을 해서 확실하게 물질적 영적 오염으로부터 정화한다. 왜냐하면 우두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두의 파르드는 즉 충족해야 하는 필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얼굴, 팔과 함께 손 및 발을 씻고 머리를 물로 쓰다듬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움마에게 가르쳤던 우두의 순나들이, 즉 우두를 아름답게 만드는 예언자의 실천은 다음과 같다: 우두를 알라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우두를 할 때 입에 물을 넣고 양쪽 콧구멍에 물을 빨아들여 깨끗하게

4 티르미드, 타하라, 1.(Tirmidhi, Taharah,1)

하고 머리 앞뒤 또는 전체를 물로 쓰다듬고, 귀를 깨끗하게 하고 우두에서 씻어야 하는 부분들을 세 번 씻고 문지르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게 두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순수한 영혼과 몸으로 언제라도 알라(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결의 기본 중 하나는 구슬이다.

성기에서 정액이 나오거나, 정액의 유무와 관계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여성이나 남성이 몽정을 한 경우, 여성의 월경 및 산후 출혈이 끝났을 경우 반드시 구슬을 해야 한다.

구슬을 하기 전에 바스말라(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를 말하며 구슬을 위한 의도를 말한다. 그런 다음 입과 코에 물을 빨아들여 철저히 씻고나서 예배를 위해 하는 우두를 한다. 마지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마른 부분이 남지 않도록 씻는다.

우두와 구슬을 하는 동안 물을 낭비하고 성급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예언자의 많은 하디스에 우두를 잘 하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므로 무슬림을 청결하고 품위 있고, 유쾌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게다가 보상을 받게 하는 우두는 큰 축복이다. 조건에 따라 때로는 우두를, 때로는 구슬을 한 무슬림은 예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쌀라(예배)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를 받칠 것이며
다같이 고개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라."⁵
(꾸란)

이슬람이 샤하다 후 명령한 숭배행위 중 첫 번째는 예배이다. 예배는 타크비르(알라는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것)로 시작하고 쌀람(앗쌀라무 알라아쿰 와라흐마툴라)으로 끝나는 특정 동작과 낭독으로 구성된 특별한 숭배행위이다. 예배는 종이, 깊은 존경과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알라(하나님) 앞에 서서 진심으로 그분께 간청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알라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무슬림으로 또 인간으로서의 의무이다. 각 축복에 대한 감사는 그것의 종류로 한다. 다시 말해 물질적이나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모든 종류의 축복에 대한 감사는 그것을 알라께 바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의 몸과 정신, 말하는 능력과 건강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축복이다. 예배는 육체적으로 하는 숭배행위로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알라께 감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바까라 장, 2:43.

꾸란은 역사를 통틀어 모든 예언자들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명령했다고 선언한다. 물론 사회마다 예배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슬림의 예배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가르치고 보여준 형태로 하루에 5번 끼블라를 향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몸과 의식과 마음을 하나로 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예배가 자신을 모든 면에서 둘러싼다고 느낀다. 끼얌(서 있는 자세)에서 알라의 면전에서 서 있고, 루쿠(허리를 굽혀 두 손바닥을 무릎위에 놓는 자세)에서 오직 그분 앞에서만 절하며, 수주드(엎드려 절하는 자세)에서 알라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슬람 종교의 기둥, 악에 대한 보호, 죄의 속죄이자 인간이 내세에서 가장 먼저 심판받을 행위 중에 첫째는 예배이다. 예배를 지체없이 경외심과 의로움으로 하는 것은 무슬림의 독특한 특징으로 꾸란에서 자주 언급된다. 합동 예배를 위해 성원에 가는 것은 무슬림들 간의 만남, 단결, 형제애 및 연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강력히 명령되었다.

무슬림의 의무는 알라의 사도의 격려와 조언을 따르면서 예배에 필요한 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삶의 바쁜 일상에서 다섯 번의 휴식을 취함으로써 전능하신 알라를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것이다. 예배에서 전심으로 알라께 향하는 종은 정화되고 진정될 것이며 마음속에 평화가 채워지고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할 것이다.

예배를 하기 위해 우두 또는 필요한 경우 구슬을 하는 사람은 물질적 및 영적 더러움으로부터 청결해진다. 외양에 신경을 쓴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몸의 사적인 부위(아우라;awrah) 즉 노출되면 안되는 부위를 덮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끼블라를 향하고 얼굴을 끼블라로 향하게 하는 동시에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 끼블라는 카아바이다. 카아바는 알라의 집이다. 전 세계 무슬림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여 신성하고 웅장한 지점에서 만난다.

다섯 번의 예배는 무슬림에게 파르드(절대의무) 즉 알라가 명령하는 단념이 불가능한 필수적인 예배이다.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에 수행되는 "파르드(절대의무)예배"는 서로 다른 라크아 수, 즉 짧은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습관이 되어 무으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순나예배"와 사람이 원할 때마다 행할 수 있는 "나팔(자발)예배"가 있다.

예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알고 먼저 의도를 말로 하고, 다음에 손을 들고 타크비르를 말한다.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라고 말함으로써 알라의 존재, 유일성, 가장 영광스럽고 그분 이외에 숭배받을 존재가 없다는 의식으로 예배를 시작한다. 예배를 시작하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타크비르 후 손을 내려 가운데로 모으고 알라의 면전에서 잠시 동안 끼얌 자세를 취한다. 즉 서 있다. 처음에 "수브하나카"라고 알려진 기도문을 암송한다. 기도 후에는 전능하신 알라께, 기도와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파티하 장(개경 장)"으로 계속한다. 파티하장을 마친 후 "아민"이라고 말하고 꾸란에서 알고 있는 수라(장) 또는 구절을 암송한다.

끼얌(서 있는 자세) 후 타크비르를 하며 루쿠(허리를 굽혀 두 손을 무릎에 놓는 자세)를 한다. 루쿠란 알라의 위대함과 영광 앞에서 종의 나약함을 표현하는 허리를 구부리고 굽히는 상태이다. 루쿠에서 최소 세 번 "수브하나 랍비알 아딤(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결점으로부터 거리가 머십니다)"를 말한다.

루쿠 자세에서 일어나 다시 서있는 자세로 돌아올 때 "사미알라후 리만 하미다(하나님께서 찬미하는 자의 말을 들으십니다)"라고 말하고 "랍바나 왈라칼 함드(모든 찬미는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감사를 표현한다. 그런 다음 타크비르를 하며("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는 것) 수주드(엎드려 절하는 것)를 한다. 수주드는 손, 얼굴, 무릎과 발을 땅에 대며, 이마와 코를 땅에 대면서 엎드리는 것이다. 한 라크아에서 두 번째로 엎드려 절할 때는 적어도 세 번 "수브하나 랍비알 아올라(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부족함으로부터 머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두 번의 수주드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앉아 기다려야 한다.

이 순서대로 수행되는 예배의 각 부분을 "라크아"라고 한다. 라크아가 완성된 후 예배의 마지막에 잠시 동안 앉는 무슬림은 다양한 기도문을 암송한다. 카다 이 아키라라고 하는 이 앉아 있는 동안 "앗-타샤후드", "앗-쌀라투 알란나비", "랍바나"로 알려진 기도문을 암송한다. 마지막으로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툴라."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먼저 오른쪽 다음은 왼쪽으로 쌀람을 하는 사람은 예배를 끝낸다. 쌀람은 사람의 좌우에 있는 천사들, 사람들과 우주를 위해 평화와 평안을 기원하며 예배로 이 세상의 일을 떠난 사람이 세상 일로 귀환하는 것을 상징한다.

예배를 게으름, 태만, 무관심과 같은 이유로 인해 단념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무슬림에게 적합한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슬람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율과 중이 되는 것의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단식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 의무라 자제
함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라."⁶

(꾸란)

단식은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부터 일몰 때까지 오직 알라(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 단식을 의도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다. 단식은 예배, 자카트(희사), 하즈(성지순례)처럼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명하는 필수적인 숭배행위의 하나이다.

이슬람에 따르면 단식이라는 숭배행위는 라마단 달을 맞이하여 이성적이고 사춘기에 이른 모든 무슬림들에게 파르드(절대의무), 즉 성취해야 하는 의무이다. 아프거나 여행 중인 사람, 임산부 및 수유 중인 여성은 라마단 단식을 나중에 할 수 있다. 즉 보충 단식을 할 수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회복의 희망이 없는 중증 환자와 단식이 불가능한 노인들은 단식을 앞으로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금(fidyah)"을 줘야 한다. 배상금이란 수행하지 못한 라마단 단식의 각 날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먹일 만큼의 양을 지불해야 한다. 재정 상황이 이것에 적합하지 않은

6 바까라 장, 2:183.

사람들은 알라께 용서를 구한다. 알라께서는 공정하시며 배상금은 단식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지원하는 지불이며 단식의 가치가 물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단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슬림은 위장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기관으로 단식을 해야 한다. 좋은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보지 말아야 하며, 귀는 좋은 것을 듣고 죄를 듣지 말아야 하고, 혀는 좋은 말을 하거나 침묵해야 하며 마음은 좋은 것을 의도하고 나쁜 욕구로부터 멀리해야 한다. 거짓, 비방 및 부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단식이라는 이름으로 굶주리는 것을 알라께서는 필요로 하지 않으시다.

단식은 사람을 과도한 욕망, 바램 및 의욕들로부터 구제하여 교육한다. 사람에게 인내, 감사, 타와쿨(신뢰), 축복 및 건강의 가치를 가르친다. 몸에 건강을, 정신에 기백을, 마음에 안도감을 준다. 수후르(새벽 예배 전에 먹는 식사)를 위해 일어남으로써 시간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프타르(단식을 깨뜨리는 식사) 식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선의 풍요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자카트(희사) 및 싸다까(자선)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며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
(이슬람세를) 바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꾸란)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사회의 취약한 사람들을 강화하는 것은 무슬림의 도덕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런 선한 활동을 조직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이슬람교에서 자카트(희사)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자카트(희사)는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 중 하나이다. 이슬람의 기준으로 부유한 무슬림이 소유한 재산의 일정량을 온전히 알라의 기쁨을 고려하고 꾸란에 의해 결정된 궁핍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금, 은, 상품, 농작물 및 가축과 같은 소득을 가져온 재화에서 꾸란 및 순나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자카트를 줘야 한다.

자카트는 부의 손실이 아니라 반대로 부를 청결하게 하고 축복을 주며 내세의 상으로 바꾸는 숭배행위이다. 꾸란에서 신자들의 특성을 세어볼 때 많은 구절에서

7 바까라 장, 2:277.

예배를 바르게 하고 자카트를 지불한다고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다. 이 구절들에서 육체와 재산으로 알라를 숭배함으로써 모든 존재를 그분께 바치는 인류 모델을 설명한다.

이슬람에 따르면 부자가 자카트를 주어야 하는 의무 이외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두가 "싸다까(자선금)"를 줄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제거하고 성의로 기부함으로써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싸다까에는 제한이나 장소 및 시간 등의 제약이 없다. 물질적, 영적 의미에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선행은 싸다카로 간주된다.

배고픈 자를 위해 그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싸다까일 때, 아픈 자를 위해 그를 방문하는 것이 싸다까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집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것과 어머니가 그 음식으로 요리하고 가족을 배부르게 하는 것도 싸다까이다. 좋은 말, 정성스런 조언, 미소짓는 얼굴, 선에 부르고 악을 금하며 여행자와 손님을 대접하고 노인의 짐을 덜어주고 동물을 자비롭게 보호하고 지식(ilm)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많은 선행은 자선의 범위 내에 있다.

전능하신 알라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부여하신다. 그러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재산의 주인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다. 재산의 감사에 대하여 우선 재산의 진정한 주인은 알라라고 믿고 그 재산에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자선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재산의 소유와 축적을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유한 신자는 소유한 물질적 능력을 좋은 길에서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슬람에서 재산 중에 나쁜 재산은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축적하고 인색함을 지닌 재산이다.

자카트와 싸다까에 대해 강조되는 또 다른 점은 겸손과 비밀스럽게 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도움을 드러내고 기부를 광고로 바꾸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에 대한 시험에 성공하는 것은 오직 재산에 대한 애착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사람은 자카트와 싸다까를 제공함으로써 인색함과 물질 및 이익의 포로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눔의 즐거움을 즐기면 관대함에 익숙해진다. "나"라는 느낌을 제쳐 놓음으로써 "우리"라는 느낌의 가치를 깨닫는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은 일시적이다. 영구적인 것은 믿음과 의로운 행동, 즉 선에 하는 투자이다. 인간은 오직 재산이 맡겨진 존재이다. 진실된 부자라면 성의껏 기부하는 자카트로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며 싸다까로 학교, 성원, 분수를 짓고 지식을 공유하여 사람을 양성하는 자이다.

하즈(성지순례)



"그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 안전할 것이며 능력이
있는 백성에게는 순례를 의무로 하셨노라."⁸

(꾸란)

이슬람교에 따르면 인류를 위해 세워진 최초의 숭배 장소는 메카에 있는 세계를 위해 자비와 지침으로 지어진 카아바이다. 하즈는 이흐람 상태에서 이슬람력 둘 히자 달 9일인 희생절 전 날에 아라파트 평원에서 서서 알라께 용서를 비는 것과 카아바 주위를 7번 순회하는 것이다. 이러하여 카아바를 향할 때 사실은 알라를 향하는 것이다. 하즈는 1년에 한번 실현되며 특정 일에 카아바가 위치한 "하람 지역(Haram District)"에서 수행된다.

메카로 가는 거룩한 여정은 무으밈이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할 때 멀리서 향하는 알라의 집을 이 번에는 자세히 보고 느끼게 된다. 물론 하즈의 근본적인 목표는 카아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목표는 카아바의 소유자인 알라를 기쁘게 하며 그분에게 헌신하고 순종, 복종 및 끝 없는 감사를 전하는 것이다.

8 이브란 장, 3:97.

핫즈는 물질적, 육체적으로 행해지는 예배로서 특별한 위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무슬림의 영적 측면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단결과 연대감을 심어주며 명예와 책임을 늘리고 움마(이슬람 공동체)로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한다. 핫즈의 축복받는 분위기 속에서 인종, 언어, 피부색, 관습은 다르지만 종교는 같은 무슬림들은 사랑, 지식, 예의, 경험 및 문화를 교환하고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그리하여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축복받는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핫즈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로도 큰 이득을 가지고 있다.

핫즈는 상징을 통해 진행되는 숭배행위이다. 핫즈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자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예언자 이브라힘 가족의 많은 사건, 그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의 아내 하자르(하갈)에게 일어난 일들이 핫즈(성지순례)에서 상징적으로 언급되고 반복되고 있다. 카아바 주변의 순회(따와프 Tawaf), 싸파(Safa) 언덕과 마르와(Marwa) 언덕 사이를 왕복하는 싸이(Sa'y), 핫즈시 의복인 이흐람(Ihram), 이흐람을 입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부르는 탈비야(Talbiya), 면도, 아라파트에서의 우크프(Wuquf)라고 칭하는 체류, 사탄의 의미에는 돌기둥에 돌 던지기 및 희생(꾸르반)과 같은 관행의 핫즈(성지순례)의 일부이며 예언자 아바르함으로부터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까지 예언자들의 유산이다.

알라의 사도(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나프스(nafs; 욕망, 자아)의 욕망과 성욕을 버리고 죄악을 피하고 핫즈를 마친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날만큼 청렴결백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알라께서 받아주신 핫즈의 보상은 천국일 뿐이다."**⁹⁾

9 부카리, 무흐사르, 10; 우므라, 1 [Bukhari, Muhsar, 10; Ummrah, 1]

꾸르반(희생)



"고기와 피는 하나님께 이르지 아니하나
너희의 경건함은 그분에게 이르니라."¹⁰
(꾸란)

꾸르반(희생)은 전능하신 알라를 숭배하기 위해 특정 시간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동물을 정당하게 도살하는 것이다. 모든 숭배행위와 마찬가지로 희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알라와 가까워지고 그분의 기쁨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희생은 알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있는, 알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종들의 알라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선언이다.

희생은 예언자 아담 이후 모든 사회에 명령된 숭배행위이다. 무슬림들은 오늘날에도 희생절 때 알라께 바친 희생으로 성실의 시험을 본 예언자 아담의 두 아들인 아벨과 카인을 상기시킨다. 이 시험에서 알라의 명령에 최선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가진 것에 만족한 행동으로 아벨은 이겼으며 질투심과 인색한 태도로 카인은 패배했다.

희생은 또한 예언자 이브라힘(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일의 복종에 대한 시험을 상기시킨다. 독생자 이스마일을 희생으로 바친 예언자 이브라힘은 알라의

10 핫즈 장, 22:37.

길에 가장 소중한 존재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솜양을 보상받았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도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매년 희생절을 지냈으며 희생된 동물의 고기를 가족과 함께 먹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곤 했었다.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절에도 살된 동물들을 의미하지만 연 중 다른 시기에 숭배의 목적으로 희생된 나즈르(결심), 감사, 속죄 및 아키카(아기의 탄생을 위한 희생)가 같은 희생의 종류도 있다. 이와 같은 고기를 사용하는 데는 구별된 종교 법령이 있다.

희생 숭배의 의미는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다음과 같은 말에 요약되어 있다. **"나는 하니프(진실한 자)로서 내 얼굴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알라께 돌렸고 나는 무쉬리크(다신론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나의 예배, 나의 희생, 나의 삶과 죽음은 세상의 주님이신 알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동반자가 없으십니다. 나는 이것을 명령을 받았으며 나는 무슬림 중 첫 제입니다. 오 알라! 이 희생은 알라 당신의 명령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와 움마에 의해 당신의 기쁨을 위해 희생된 것입니다."**¹¹

희생을 한 무슬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그분의 길에서 사용하고 정화하기 위해 이 숭배행위를 수행한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인색함으로부터 보호받고 알라의 길에서 선행과 공헌을 하는 기쁨을 경험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시작하여 궁핍한 사람, 피해자와 고아를 행복하게 만든다. 따라서 희생은 무슬림 공동체에서 형제애, 협력 및 연대의 정신을 유지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11 아부 다우드, 다하야, 3-4.[Abu Dawud, Dahaya, 3-4]

두아(기도)



"나의 종복들이 그대에게 나에 관해 물을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서 내게 기도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부름에 따르라
나를 믿는 자들은 바른 길로 인도되리라."¹²

(꾸란)

두아란 종이 진심으로 알라(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그분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표현함으로써 그분의 은혜와 도움과 용서를
기원하는 것이다.

두아의 폭넓은 의미세계에서 알라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등한 존재나 비슷한 존재가
없으시다고 표현하며 악으로부터 보호와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비는 것과 같은 다양한 감정과 의도가
있다.

두아는 형태와 조건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
시간과 장소가 없는 평생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숭배행위이다. 물론 성스러운 밤, 파르드(절대의무)
예배를 한 직후, 금요일 예배 시간, 희생절 전 날과 같은
두아가 받아 들여질 때도 있다. 마찬가지로 메카, 카아바,

12 바까라 장, 2:186.

아라파트, 메디나와 같은 두아와 통합된 장소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알라께 두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아는 알라와 종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인류는 평생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직면한다. 분노, 슬픔, 고통, 두려움, 무력감, 외로움, 절망, 질병, 가난, 자포자기와 같은 상태를 경험한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알라께 두아할 필요성을 느낀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알라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희망은 인간의 슬픔을 완화시키고 인내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알라께서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두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이 부가 없을 때 뿐만이 아니라 부를 가졌을 때도, 고생을 겪을 때 뿐만 아니라 평화를 찾았을 때도 종이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곤경에 처했을 때 간청하고 안도했을 때 그분을 잊어버리는 불충하고 배은망덕한 종들을 꾸란에서 질책으로 언급하신다.

무슬림은 두아를 통해 삶을 의미와 가치 있게 만든다. 알라께서 자신을 항상 보고 듣는다는 자각으로 두아 없이 살지 않는다. 두아 중 서두르지 않고 두아가 받아 들여질 것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뿐만 아니라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두아함으로써 이기심을 피한다. 진심으로 간청하고 알라로부터 좋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 세심함을 기울여야 한다.

제 3 장
윤리 원칙

이슬람은 훌륭한 윤리의 종교이다.



**"진실로 믿는 자 중 신앙적으로 가장 훌륭한
자는 보다 훌륭한 성품을 지닌 자이니라."**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와 깃들기를))

윤리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다른 생명체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기초이다. 타우히드(알라의 유일성만을 믿는 것)의 종교인 이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윤리 원칙에 부여하는 가치이다. 이슬람의 주된 목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필수 조건으로 도덕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건강한 사회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예언자로 임명되기 전에도 선하고 훌륭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무함마드"라고 알려져 있는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와 깃들기를)는 **"나는 훌륭한 품성과 도덕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 보내졌다(카시폴 하파, 1권 211쪽)"**¹라고 말했다. 그는 예언자 의무의 초기부터 신앙의 원리와 동시에 도덕 원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1 아부 다우드, 순나, 15 [Abu Dawud, Sunnah, 15]

2 이븐 한발이, II, 349 [Ibn Hanbal, II, 349]

이슬람교에서 믿음과 윤리의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었다.

이슬람은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면에서 도덕적 삶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알라와 가까워지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도덕성을 타협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 예언자가 많은 하디스에서 표현한 바에 따르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알라께서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사람을 용서하고 비밀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면 알라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보호하시며,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사람이면 알라께서도 그 사람에게 풍요를 가져다주시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면 알라께서도 그를 도움 없이 홀로 두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권리를 침해하고 잘못을 폭로하고 손님, 여행자, 친척에게 인색한 사람들은 알라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이슬람에 따르면 좋은 도덕성은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종과 알라 사이의 관계도 우려하고 형성한다.

무슬림의 성격은 정의, 자비, 창조자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 겸손, 관대함, 신뢰, 진실성, 근면, 환대, 연대 및 협력과 같은 미덕을 포함한다. 이슬람에 따르면 사람을 현세와 내세 모두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신앙), 훌륭한 도덕 및 성실한 숭배 생활이다.

이슬람은 공정의 종교이다.



"알라(하나님)께서 정의와 선을 실천하라.
명령하사 친척에게는 자선을 베풀라
하셨으되 추한 언행과 사악함과 배반함을
금하심으로 너희에게 교훈으로 하셨노라."³

(꾸란)

공정성이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는 것이다.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적합한 과업과 직원에게 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람들 사이의 공정성, 평등 및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정의이다. 공정성 덕분에 인간의 존엄성, 명예 및 권리는 물론 사회의 평안과 질서가 보호받는다.

전능하신 알라의 이름 중 하나는 "알-아들(Al-Adl)" 즉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공정성의 소유자"이다. 우주를 균형있게 세우시고, 아무리 사소한 선이나 악이라도 온전히 보답하시고, 종들 사이에서 항상 공정성으로 다스리는 분은 알라이시다.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축복은, 불평등하게 배분되거나 어떤 어려움은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을 내세와 함께 무한하게 확장되는 과정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알라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3 나훔 장, 16:90.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르셔서 내세에서 이에 따라 보상을 하여 절대적인 정의를 제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알라께서는 행정, 재판 및 모든 인간 관계에서 공정성의 척도에 따라 행동하도록 명령하시고 공정성과 반대되는 박해를 엄격히 금지하신다. 이슬람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인종, 혈통, 사회 계급, 피부색, 언어, 종교 및 성별에 관계 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알라의 면전에서 우세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즉 타끄와(경건함)를 갖는 것이다.

이슬람은 모든 사람의 생명, 재산, 순결, 믿음과 이성(理性)을 건드릴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 그와 같이 전능하신 알라께서는 무슬림에게도 그들의 적들에게도 공정성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신다. **"믿는 자들이여! 정의에 의하여 입증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공정한 증인이 되라. 타인에 대한 증오로 공정을 잃어서는 아니되나니 정의로서 행동하라. 그것은 가장 독실한 신자의 의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니라."**⁴

공정성은 사회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가치이다. 공정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억압, 불의, 불신, 혼돈과 선동이 사회를 둘러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정당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함께 살거나 명령 및 책임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준수하는 것은 무슬림의 필수 조건이다. 부모가 자녀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행동하고, 통치자는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고, 판사는 공정성 있게 재판을 하고, 사회에서 남녀 사이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고용주가 공정한 방식으로 근무 환경을 규제하는 것이 이슬람의 명령이다.

4 마이다 장, 5:8.

이슬람은 평화와 복지의 종교이다.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이슬람으로
온전히 귀의하라."⁵

(꾸란)

이슬람교의 이름은 "살람(Salam)" 즉 "평온, 평화, 구원"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했다. "알-살람(Al-Salam)"도 전능하신 알라의 이름 중 하나이며 "평화와 평온을 가진 분, 구원을 해 주는 분"을 의미한다. 무슬림이란 "평온과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이만(믿음)"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느끼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혼란, 갈등, 테러 및 전쟁은 이슬람의 본질, 파견 목적 및 존재 원칙과는 무관하다.

이슬람은 세계에 평안, 평화, 상호 존중 및 신뢰의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성(理性)과 같은 축복을 받은 인간은 타툼과 불화를 끝내고 화해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무슬림은 생계를 유지하고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며 훌륭한 품성을 가진 성숙한 성격을 자신에게 삶을 주신

5 바카라 장, 2:208.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 그분께 복종함으로써 평화와 복지의 근원에 헌신한다.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평화와 평온을 얻었을 때 또한 이 평화를 그의 외부 세계로도 가져간다. 그는, 알라께서 인류에게 진정한 길(정도)의 길잡이로 보내신 꾸란과 평화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를 따라 "다르 알 썰람(Dar Al-Salam)", 즉 "평화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낙원에 도달한다.

인류의 역사는 많은 전쟁, 잔악함과 억압을 목격해 왔다. 신념, 피부색, 인종 또는 살고 있는 땅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명예가 침해 당했으며 존엄성이 훼손되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 생명권을 박탈 당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전능하신 알라께서는 인류에게 경고하고 인류에게 어울리는 삶을 제시하기 위해 예언자와 성서들을 보내셨다. 예언자직 사슬의 마지막 고리에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 무스타파(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로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이다.

이슬람의 예언자인 예언자 무함마드는 평생동안 대화 상대를 정당함과 진리로 초대하고 평화와 화해에 섰다. 이슬람의 존엄성, 인도주의적 가치, 이슬람의 권리와 면책이 건드려지지 않는 한 결코 무기에 접근하지 않았다. 이 상황은 꾸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하나님은 종교를 이유로 너희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지 아니 한 자들에게 친절하고 그들과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⁶

예언자의 많은 하디스에서 이슬람에서 형제들 사이를 쇄신하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이며, 분쟁을

6 몸타하나 장, 60:8.

외교적 방법과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의 필요성과 충성심이 제기된다. 사실 알라의 사도가 다신론자들의 박해의 결과로 강제로 쫓겨나서 수년 후 메카에 승리한 사령관으로 돌아왔을 때 정복의 날에 피를 흘리지 않았고 복수하지 않고 메카인들을 용서했다.

이슬람은 평화롭게 살고 모든 인류의 선을 위해 선행으로 함께 행동하기 위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서로 평화를 위한 입장을 취하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 신념 및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슬람은 함께 사는 것의 도덕성과 법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슬람 문명은 다른 인종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땅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았던 독특한 사례를 목격했다.

이슬람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지하드에 대해서 여기에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슬람에 따르면 지하드는 알라의 길에서 쓰인 노력과 진리를 위해 하는 투쟁의 이름이다. 지하드는 신자의 생명, 재산 및 모든 존재를 동원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는 노력이다.

지하드는 성스러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 말, 의견과 마음으로 결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 지하드는 무슬림이 자신의 나라에서 존엄성, 정체성 및 자유로움으로 존재하고 그의 이만(믿음), 깃발, 독립성 및 명예를 보존하려는 결의이다. 지하드는 전혀 부당한 공격, 파괴, 착취 또는 억압이 아니다. 반대로 지하드는 억압과 억압하는 자에게 반대하여 무슬림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다. 무슬림은 때때로 손, 펜과 의견으로 그리고 때가 오면 재정적 가능성과 에너지로 알라의 길에서 일하고 노력한다. 진실을 말하고 좋은 일에 초대하고 아름다움에 구실이 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다. 신앙, 존재, 나라, 생존 및 자유를 위한 무장 투쟁에 들어가는 것은 지하드의 최후의 단계이다.

오늘날 이슬람과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테러 조직에 의해 행해진 더러운 속임수는 지하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의와 도의심을 잃은 살인 네트워크와 책임을 무슬림들에게 지게 하는 자살공격, 잔인함과 폭력은 이슬람의 지하드 개념과 결코 연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지하드는 충을 들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슬람에서 지하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 내려 하는 것이며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의 이름이다. 누구에게든 어떤 이유로든 무엇을 하든 무고한 사람들을 목표로 한 공격은 이슬람이 지하드에 부과한 숭고한 정신과 이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종교, 신앙, 미덕과 인간성, 이성(理性)과 양심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테러는 항상 저주를 받을 만하다.

지구상에서 온갖 악이 없어지는 것, 음모와 패배주의를 일으키는 자에게 중지하라 하는 것과 평화를 되찾는 것이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은 이 공동의 노력에 초대를 하고 억압과 폭력에, 모두 함께 반대를 하며 개선을 위해 연합하여 노력을 무슬림들을 비롯해 모든 인류로부터 기대한다. 사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무슬림과 무으민의 정의는 매우 분명하다: **"무슬림이란, 사람들이 그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평안함을 느끼는 자이니라. 또한 무으민(진실로 믿는 자)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그로부터 안전함을 느끼는 자이니라."**⁷

7 티르미디, 이만, 12.[Tirmidhi, Iman, 12]

이슬람은 지식과 지혜의 종교이다.



"일러가로되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같을 수 있느냐?"⁸
(꾸란)

"알 알림 (Al-Alim=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지식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알라께서 인류를 지식을 얻고, 얻은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창조하셨다. 이슬람교는 인간이 타고난 이 재능을 선을 위해 사용하고, 배웠고 가르치는 것으로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 지식 덕택에 세상을 최선의 방법으로 건설하기를 원한다. 사실 사랑하는 우리 예언자에게 꾸란의 계시로서 첫 번째 명령은 **"읽어라!"**였다.

이슬람의 "읽어라!"라는 명령은 문해력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우주를 읽고 이해하고 발견하여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표현한다. 인류는 동시에 자신을 읽고 창조의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창조된 몸과 영혼을 인식함으로써 그의 창조주에게 도달해야 한다.

8 주마르 장, 39:9.

지치고 노력하고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는 최고의 일은 지식(일림=ilm)으로 바쁘다는 것이다. 이슬람은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지식을 얻는 것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개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의무로 간주한다. 마지막 예언자(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듣는 자 또는 지식 (일림=ilm)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자가 되어라. 다섯 번째가 되지 마라, 당신은 무너질 것이다!"**⁹⁾

사실, 모든 예언자들은 교사이며 인류를 올바른 지식 덕택에 이 세상과 내세에서 행복하도록 초대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은 알라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도덕을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자신이 아는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고양된다.

이슬람에 따르면 사람들을 악으로 이끄는 거짓되고 근거없는 지식을 일림(ilm)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두아(기도)를 할 때 알라께 유용한 지식을 요청하고 유익하지 않은 지식으로부터 알라께 피난한다. 그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가장 정확한 지식의 원천인 꾸란을 배우고 가르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는 자신의 말인 하디스를 온전하고 매우 정확한 형태로 동일하게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보상의 소식을 전달한다. 따라서 그는 지식이(일림=ilm) 퍼지고 무지가 사라지기를 원한다.

예언자의 많은 하디스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 나선 사람들은 낙원에 도달할 것이고, 그의 지식으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된 사람은 죽은 후에도 그 지식이 사용됨에 따라 계속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지식을 숨기는 이기적인 사람 및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에

9 다리미, 무까띠마, 26.[Darimi, Muqaddimah, 26]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진다고 설명한다. 이슬람의 가르침에서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무지를 제거하는 것은 동시에 사람들을 알라와 더 가깝게 하고 보상을 얻게 하는 숭배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길: **"가장 훌륭한 자선은 무슬림이 자신이 배운 것을 무슬림 형제에게 가르치는 것이다."**¹⁰

10 이븐 마자, 순나, 20.[Ibn Majah, 20]

이슬람은 모든 일에서 친절을 명한다.



**"무르민은(신실로 믿는 자) 강간과
명예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 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¹¹**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말과 행동에서 무례함을 피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건설적이고 화해적이며 예의를 갖추는 것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자 성숙한 무슬림인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모든 종류의
무례함, 추함, 실례함, 예의 없는 행동들로부터 멀리하는
것으로 초대하기 때문이다. 욕하는 것, 저주 및 모욕과
같은 모든 나쁜 말과 태도는 알라의 사도인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에 의해
금지된 것이다.

이슬람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신체, 생명, 정신 및
존엄성은 온갖 종류의 부당한 개입, 위협 및 모욕으로부터
보호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 부모, 가족 구성원들,
그가 속한 인종, 국적 및 신념 체계는 구두 및 실제 공격의

11 티르미디, 비르와 슬라, 48.[Tirmidhi, Birr and Sila, 48]

대상이 될 수 없다. 의견의 차이는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갈등은 폭력없이 언급되며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법과 도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면 안된다. 따라서 죄가 있는 사람조차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모욕이나 고문을 당하면 안된다.

반면 무슬림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온유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친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연의 친구가 되고 다른 존재에 대한 연민, 양심과 자비로 행동하는 것은 종교의 명령이다.

마지막 예언자인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무슬림들에게 "이흐산(ihsan)", 즉 그들의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대가 없는 선함을 근거로 행동하라고 조언한다. 그의 모범적인 삶은 그의 가족을 비롯해 주변인과 친구 모두에게, 심지어 그의 종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의와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슬람은 자비의 종교이다.



"나는 저주가 아니라 자비로 보내졌다."¹²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라흐만(가장 자애로우신 분)"와 "라힘(가장 자비로우신 분)"인 알라는 그분의 끝없는 자비로 존재의 전 세계를 보호하며 축복으로 장비하신다. **"내 자비가 내 분노를 지나쳤습니다."**¹³ 라고 선언하시고 이 자비의 요구 사항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공정하기를 요구하신다.

인류의 가장 완벽한 사람인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자비의 사도이다. 그는 자비와 연민의 예언자이다. 그는 마음이 굳건하고 비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교우들은, 그의 주변에 모여 폭력에 취약한 무지의 사회가 그의 지도 아래 자비를 만나게 되었다.

예언자의 순나에서 얕은 동정심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세심한 태도가 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 따르면 크든 작든 알라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자비를 받을

12 무슬림, 비르와 슬라, 87.[Muslim, Birr and Sila, 87]

13 부카리, 타우히드, 22.[Bukhari, Tawhid, 22]

자격이 있다. 지상에 있는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푸는 인류는 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다.

물론 자비의 가장 아름다운 반영은 무슬림 간의 상호 사랑, 자비, 친절 및 연대이다. 그러나 자비는 단지 사람, 무어민, 선한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보이는 관심의 이름이 아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이나 환자처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및 인간에게 맡겨진 동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슬람 도덕의 필수 요건이다.

자비와 반대되는 박해와 폭력은 이슬람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힘을 남용함으로써 파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우선 "세상의 부흥과 개선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위배된다. 폭력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반대하는 것과 상관 없이 용납될 수 없다. 육체적, 정서적 또는 경제적 모든 형태의 폭력은 면책을 위반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이와 관련하여 알라의 사도의 순나 즉 그의 생활 방식은 폭력을 멈추고 자비를 원칙으로 삼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알라의 사도(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무지한 사고의 폭력을 내포한 모든 부정적인 신념과 행동을 거부했다. 원한, 분노, 질투, 탐욕, 복수, 고통과 눈물을 가져다주는 폭력이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조직인 가족을 시작으로 모든 계층에서 지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결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했다. 가족 및 사회 생활 속의 여성들에게 거칠고, 잔인하고, 불공평하고 무자비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이슬람의 기본 원칙에서 근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전쟁처럼 폭력이 절정에 달하는 환경에서도 법과 도덕 준수를 명령했으며 포로들을 잘 대하고

전쟁에서 노인, 여성, 어린이 및 성직자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시했다. 전쟁에서도 폭력과 잔인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를 믿는 무슬림은 자비의 사자(使者)이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신앙과 사랑이 있고, 도덕 의식에는 쌀람들의 권리에 대한 의식과 내세에 대한 의식이 있으며, 그들 앞에는 꾸란과 예언자의 모범이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하며, 살고 있는 환경을 사랑과 신뢰를 소개하는 것이 무으민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무으민은 자비로운 결정, 자비로 커 가는 문장 또는 자비에 손을 뻗는 덕택에 자비의 진정한 소유자인 알라께 가까워진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표현으로, **"알라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¹⁴

14 부카리, 타우히드, 2.[Bukhari, Tawhid,2]

무슬림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무 목적없이 방황토록 내 버려
두리라 인간은 생각하느뇨."¹⁵
(꾸란)

전능하신 알라께서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이성(理性)"과 "의지"를 부여하여 사람을 구별되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다양한 능력을 갖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옳은 것, 바른 것과 선을 위해 사용하고 자유를 책임감 있는 의식 속에서 평가하기를 요청했다. 결국 세상의 삶은 시험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나 멋대로 하는 결정은 시험의 정신에 어긋난다.

책임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며 그들을 목적이 없는 삶으로부터 구제한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단지 가능성과 축복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책임을 다할 때 행복하고 평화로워진다.

꾸란이 명백히 말한 바에 따르면 전능하신 알라께서 이성 및 의지가 있는 종들에게 부여하는 책임은 그들이

15 까야마 장, 75:36.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있다. 종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들을 위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알라께서는 잊거나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 종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스쳐 온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알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사람은 알라로부터 왔고 그분에게 속하며, 결국 그분께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알라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의식으로 삶을 인도하고,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이 의식과 함께 내딛는다.

인류의 알라에 대한 주된 책임은 그분의 존재와 유일성을 믿고 그분께 어떤 것도 연관시키지 않고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라와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반영된다. 따라서 알라의 우리에게 대한 권리는 단지 숭배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 가족, 친척, 사회 및 자연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권리와 책임을 양팔 저울의 두 접시를 비유한다. 서로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 자연스럽게 상호 책임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권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책임 또한 맡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지면 평화로운 개인들과 강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무슬림은 가족을 잘 대한다.



**"그대들 중 가장 훌륭한 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가장 잘 하는 자이니라. 나 또한
나의 가족에게 가장 잘 하는 자이니라."**¹⁶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가족을 세우고 건강한 세대를 키우는 것은 이슬람이 강력히 권장하는 삶의 모델이다. 꾸란에서 남녀 간의 사랑과 자비의 유대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이며 가족은 그분의 축복으로 제시된다. 결혼은 단지 엘리트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됐을 때 새 보금자리를 짓기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자신과 동등한 존재도 동반자도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분은 알라이시다. 따라서 인류를 위해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

이슬람은 가족을 구성하는 것 만큼이나 가족이 되는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가족이 되려면 감정과 생각, 우정, 신뢰, 자비, 정의와 선을 돕고 악에 대항하는 공동 투쟁이 필요하다.

16 티르미, 만아킴, 63.[Tirmidhi, Manaqib, 63]

이슬람교에 따르면 가정에는 폭력의 여지가 없다. 모든 면에서처럼 가정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인 알라의 메신저(그분에게 알라의 평화와 기쁨을)는 그의 아내, 자녀 및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한 마디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¹⁷ 그의 아내 아이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또는 가까운 친척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은 법 앞에서 범죄이고 알라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다.

무슬림은 배우자, 자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축복처럼 그는 가족도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을 온갖 종류의 악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무슬림의 의무이다. 가족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슬림임의 필수 조건이다.

17 무슬림, 파다일, 79.[Muslim, Fadhail, 79]

무슬림은 환경 친화적이다.



**"너희 중 한 명이 손에 묘목을 가지고 있을
때, 종말이 와도 즉시 심으십시오!"¹⁸**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전능하신 알라께서는 지구에서 삶을 시작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에게 환경을 알리고 우주가 전달하는 의미 코드를 설명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사실 마지막 성서인 꾸란에는 우주의 기능, 존재들 사이의 균형과 질서, 창조의 목적과 전능하신 창조주의 존재, 능력과 지혜를 설명하는 많은 구절이 있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우주의 모든 존재는 물리적 가치 이상의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무엇이든지 모두 하나님을 찬미하기 때문이다. 새에서 돌, 식물에서 개미, 태양에서 별에 이르기까지 영혼, 감정 또는 목적이 없는 존재는 없다. 이슬람이 환경에 부여하는 의미는 우선 모든 존재가 창조에 의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이슬람 사교 체계에 따르면 환경은 알라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매 순간 그분에 의해 통제되고 통치되며

18 이븐 한발, III, 184. [Ibn Hanbal, III, 184]

사람에게 위탁으로 주어졌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물 중에서 환경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형성하고 사용하며 창조주와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알라께서는 자연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주셨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이 자연 환경에 대한 무한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 그의 위탁자이다.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환경을 해치고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 환경을 파괴한다면 알라께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알라께서는 세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위한 생활 공간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이유로 무슬림은 동식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도덕심, 애착과 자비로 대한다. 우리 예언자는 아무 이유없이 죽인 참새라도 심판의 날에 알라께 그 상태를 제시함으로써 원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¹⁹ 따라서 이슬람의 환경 윤리는 이기주의, 물질주의, 과욕과 탐욕에서 벗어난 입장을 표현한다.

모든 아름다움을 지닌 우주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인류가 자신의 손으로 개입해서 독살하거나 자르거나 불태워 파괴하지 않는 한, 환경은 한 시스템 내에서 깨끗하게 유지된다. 무슬림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연의 조직을 보존하며 조화롭게 생활한다. 왜냐하면 환경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

19 나사이, 다하야, 42.[Nasa'i, Dahaya, 42]

무슬림은 절대 박해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알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박해를 나 자신과 나의 종들에게 금했다.

그러므로 서로 박해하지 마라."²⁰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박해란 권리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존재가
합당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박해는 모든
종류의 고통, 부당함, 부도덕함과 불의의 일반적인
이름이다.

이슬람에 따르면 가장 큰 박해는 알라의 권리를 알라가
아닌 타인에게 주는 것, 즉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류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수
많은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라께 다른 것을
연관시키는 것은 "쉬르크(shirk)"이다. 쉬르크란 알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받아들이고 다신론적 신념 체계를
발전시킨 다음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박해이다.

쉬르크 이외에도 알라의 구절을 부정하고 꾸란과 그
법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언자직과 예언자들을 믿지
않는 것 또한 박해이다. 인간은 이러한 상황에 빠져서

20 무슬림, 비르와 슬라, 55.[Muslim, Birr and Sila, 55]

알라를 대적하는 범죄자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을 박탈 당해 자신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긴밀한 유대를 맺는 행복, 평화, 신뢰를 경험해야 하며 세상과 내세를 자신의 감옥으로 바꾸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 살아 있는 생물과 무생물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 대인 관계에서 박해는 상대방의 한계를 위반하고 권리를 침해하며 그에게 공정하고 자비롭게 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슬람교에서는 박해가 금지되어 있지만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에는 구별이 없다. 왜냐하면 박해를 막지 않으면 사회에서 불의를 막을 수 없고, 강하지만 잔인한 사람들은 사회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무슬림은 어떤 상황이든 잔인함에 직면하여 박해받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한다. 정당함과 진실을 지키고 법과 미덕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동반자를 연관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박해를 금지했으며 범죄자들은 알라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결코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무슬림은 정직하고 솔직하다.



"나는 알라를 믿는다 하고 곧바로 하라!"²¹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본질과 하나가 되는 단어인 진실성은 인간의 의도와 말과 행동의 조화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다. 물론 이슬람 윤리에서 진실성, 즉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다는 것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예언자는 믿음과 진실성 사이에 긴밀한 연결을 형성한다. **"속이는 자는 우리의 구성원이 아니니라!"²²** 라고 말하며 그는 무슬림 성격에서 거짓말, 부정직 또는 위선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알라와 내세를 믿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거나 침묵해야 한다."²³

우선 무슬림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신의로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의도와 행동에서 일관된 길을 따라야 하며 정직함으로 주변에게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 직장 생활, 비즈니스 세계, 교육 훈련 활동, 교우 관계에서 심지어 놀 때도 거짓말을 멀리하여 정직을

21 무슬림, 이만, 62.[Muslim, Iman, 62]

22 무슬림, 이만, 164.[Muslim, Iman, 164]

23 부카리, 리카크, 23.[Bukhari, Riqaq, 23]

원칙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강해지는
신뢰의 사회를 구축한다.

무슬림은 창조자에게 감사하는 중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대지 위에서 거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으되
감사하는 너희는 소수이더라!"²⁴

(꾸란)

이슬람교에서는 축복의 가치를 알고 주어진 축복에 대해 알라(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슈쿠르(감사)"라고 한다. 슈쿠르란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말로 알라께 감사하고 그분의 축복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존경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에 대한 감사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알라임을 믿는 것이다. 혀에 대한 감사는 이러한 능력과 축복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이다. 육체적 감사는 에너지를 알라의 기쁨을 얻기 위해 일에 사용하고 예배 및 단식 같은 숭배행위를 수행하고 알라의 금지로부터 멀리하는 것이다. 재산 소유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감사는, 싸다까와 자카트를 제공함으로써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권위와 권위를 갖는 것에 대한 감사는 그의 능력을 선과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24 아으라프 장, 7:10.

감사는 실제로 예측의 의식이고 삶의 방식이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육체적, 정신적 능력부터 물질적, 영적 기회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축복에 직면하여 행복한 종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감사해야 할 욕구가 본질적으로 있다. 단순한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양심적인 감사를 빚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 창조주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하고 알라의 도움, 지원 및 대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반면 이슬람 규율에 따르면 알라에게 감사하는 것의 보완적인 부분은 그가 선함을 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알라에게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²⁵ 라고 말하였다. 감사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 결합, 친밀함을 만들어서 배은망덕함과 이기심 같은 나쁜 습관을 파괴한다. 자신에게 선함을 접하게 한 사람, 대접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고 만약 이것을 충족시킬 재정적 수단이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슬림 도덕성의 필수 요소이다.

25 티르미디, 비르와 슬라, 35.[Tirmidhi, Birr and Sila, 35]

무슬림은 실수를 저지르면 용서를 구한다.



"그 후 회개하여 모범이 되니 실로 하나님은
그에게 관용을 베푸시더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²⁶

(꾸란)

전능하신 알라께서 인간을 선과 진리를 향한 본성을 가진 길로 창조하셨고, 정신, 의식, 의지, 마음과 같은 잠재적인 힘을 창조하셨다. 이 잠재력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선을 향한 사람은 알라의 기쁨을 얻음으로써 자신과 인류를 위해 영원한 아름다움을 얻는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은 때때로 속고, 착각하고, 잊고, 나프스(nafs; 영혼, 자아)를 통제 할 수 없고 실수를 저지른다. 죄에 빠진 무슬림에게는 탈출구, 돌아올 기회 및 정화의 기회가 필요하다. 전능하신 알라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제공하시는 이 용서의 문은 회개이다.

이슬람에 따르면 죄를 후회하고 알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서", 같은 실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26 마이다 장, 5:39.

결의를 "회개"라고 한다. 알라의 또 다른 이름은 "타우와브(at-Tawwab)", 즉 회개를 많이 받아들이시는 분이다. 그분은 매우 자비롭고 그는 중의 후회를 소중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좋아하고 회개하고 개선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신다.

진심으로 행한 회개는 숭배행위이자 갱신이자 정화의 기회이다. 그것은 성숙해지고, 자신을 고려하여 잘못에서 벗어나 희망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다. 전능하신 알라의 한계를 어기면서 저지른 실수를 고치고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얻는 방법이다.

회개는 의식적이고 단호한 행동이다. 회개를 통해 무슬림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강화한다. 그는 자신의 죄를 버리고 자신의 주변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 예언자 무함마드 (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의 하디스에 따르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²⁷

한 무슬림에게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를 제외하고 후회하고 회개할 때 알라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죄는 없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죄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공적 권리의 침해도 법 앞에서 심판을 받음으로써 배상된다.

27 이븐 마자, 쥬후드, 30.[Ibn Maja, Zuhd, 30]

무슬림은 천국에 데리고 가는 길을 찾는다.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슬람을
종교로,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받아들였다.'**

라고 하면 꼭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²⁸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첫 인류인 아담과 그의 아내는 천국에서 지상으로 보내졌다. 이 세상의 삶은 실제로 인간을 위한 일시적인 여행이자 추방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은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원하며 모든 곳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은 인간의 영혼에서 자리잡은 천국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물론 무슬림을 천국으로 이끄는 길에서 믿음이 우선이다. 천국의 축복을 알라와 그분의 예언자 무함마드 무스타파와 그의 마지막이자 완전한 종교인 이슬람을 믿어야 얻을 수 있다.

의로운 행위, 즉 숭배행위와 선행은 믿음을 동반해야 한다. 따라서 무슬림은 예배를 떠나지 않는다. 단식을

28 아부 다우드, 타프리우 아브와 알 위트르, 26.[Abu Dawud Tafri al Abwabi al Witr, 26]

한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자카트를 제공한다. 그는 성지순례를 하고 하나님의 집인 카아바를 방문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숭배행위 외에도 알라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말, 노력 및 의도를 숭배로 간주한다. 사실 꾸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도 악을 피하고 관대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분노를 극복하고,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등 아름다운 특성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알려져 있다.²⁹

믿음과 숭배의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될 보완재는 좋은 품성이다. 무슬림은 자신이 믿지 않으면 낙원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선한 행동과 덕으로 믿음을 꾸미지 않으면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예언자는 숭배를 하면서도 도덕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파산'하는 사람, 즉 그의 모든 행위가 낭비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³⁰ 우리 예언자의 좋은 품성을 가지면 천국을 보장하는 다음 말씀은 매우 인상적이다. **"당신은 내게 여섯 가지를 보장해 주시고, 나는 당신에게 천국을 보장할 것입니다. 말할 때 진실을 말하시오. 당신이 약속할 때 그것을 성취하세요. 당신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그것을 소유자에게 주세요. 명예를 지키세요. 하람을 보지 마세요. 악에서 손을 떼세요."**³¹

무슬림은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삶을 사랑과 자비로 여긴다. 창조물을 창조주로 인하여 용납한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겸손하게 행동한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어떤 생물을 의도적으로 해치지 않는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관계 없이 모든

29 알루 이브란 장, 3:132-136.

30 무슬림, 비르와 슬라, 59. [Muslim, Birr and Sila, 59]

31 이븐 한발, V, 323. [Ibn Hanbal, V, 323]

사람을 존중하며, 말과 행동으로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무슬림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는 한, 하나님의 지원을 느끼고 이 희생이 그를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다. 무슬림의 삶에서 선행은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직 알라로부터의 기대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꾸란은 노예나 죄수를 해방시키고 극심한 기근의 날에는 친척인 고아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거나 신자들과 함께 인내와 자비를 서로에게 권하는 것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을 용이하게 할 것 중 하나"라고 전했다.³²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와 깃들기를)에 따르면 천국은 "마음이 새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의 장소이다. 경건함을 가지고 알라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정류장이다. 의롭고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들과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목적지이다. 알라의 사도는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길: **"정의를 떠나지 마십시오! 확실히 정의는 선으로, 선은 천국으로 이어진다. 어떤 사람이 항상 진실을 말하고 옳은 것을 추구한다면 알라의 눈에 "쓰드크"(본질과 말이 하나인 사람)로 기록된다. 거짓말은 피하라! 왜냐하면 거짓말은 악으로 이어지고, 악은 또한 지옥으로 이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계속 행한다면 결국 그는 알라의 눈에 "거짓말을 하는자"로 기록될 것이다."**³³

천국은 영원하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무한한 축복이 있는 곳이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삶으로 무한한 낙원을 얻기 위해 매순간

32 발라드 장, 90:12-17.

33 무슬림, 비르와 슬라, 103. [Muslim, Birr and Sila, 103]

정성을 다해 산다. 삶을 결코 쓸모없고 불필요하고 공허한 것들에 관여하지 않는다. 생활 자본, 청소년 에너지, 지능, 기술, 건강, 돈을 낭비하거나 헛수고하지 않는다.

물론 천국에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시험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슬림은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이다. 어떤 어려움도 축복받은 여정에서 그를 막을 수는 없다. 악마의 제안이나 나프스(nafs; 영혼, 자아)의 끝없는 욕망, 주위에서 죄로 초대하는 불의 고리는 그를 저지할 수 없다. 무슬림은 믿음의 힘으로 인내와 확고함으로 행동한다. 알라를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금지를 피한다. 예언자의 생활 방식을 모델로 삼는다. 궁극적으로 알라의 기쁨과 은혜를 얻고 영원한 자비의 땅인 낙원에 도달한다.

무슬림은 지옥에 데리고 가는 길을 피한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지자에게 있었노라 그럼에도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는 신앙인의 길이
아닌 길을 따르는 자 있나니 그들이 선택한 길로
가도록 두라. 그 길은 불행한 여로이니라."³⁴

(꾸란)

예외 없이 이슬람의 모든 명령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금지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슬람이 금지하는 생각, 말, 행동 중에서 쉬르크(shirk)가 우선이다. 쉬르크는 알라께 동반자를 연관시키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신교적 신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쿠푸르(kufr)"란 창조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 쉬르크와 쿠푸르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길의 꼭대기에 있다.

민더라도 알라의 한계를 지키지 않고 죄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선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죄를 지은 후 후회하지 않고 요컨대, 이슬람에서 죄에 무관심한 것이 금지되어 있다.

34 니싸아 장, 4:115.

이슬람에서 "하람(금지된 것)"이라고 불리는 엄격한 금지는 꾸란 구절 및 예언자의 하디스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하람(금지된 것)을 저지르는 것은 그들이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은 한 알라에 의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말한 금지 사항과 주요 죄악 중에서 다음을 나열할 수 있다.

- 알라를 믿지 않거나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것.
- 알라께서 건드릴 수 없게 만드신 생명을 죽이는 것.
- 자살하고 안락사로 스스로 죽는 것.
- 알코올과 약물 사용하는 것.
- 도박하는 것.
- 이자 사용하는 것.
- 도둑질 하는 것.
- 불공정하고 부당한 수입을 얻는 것.
- 측정 및 측량을 허위로 하는 것.
- 간음, 혼외 관계 또는 미혼 관계.
- 순결한 사람을 비방하는 것.
- 고아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및 공공의 권리를 취하는 것.
-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
- 모든 생명체를 박해하는 것.
-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례를 행하는 것.
- 이웃을 괴롭히고 친족 관계를 끊는 것.
- 재산, 시간 및 건강을 낭비하는 것.

여성과 남성 메디나의 모든 무슬림들은 예언자를 처음 믿었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알라를 어떤 것과도 동일시하지 않을 것, 흠치거나 간음하지 않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알라가 금지하신 삶을 죽이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며,

유리한 문제에 대해 예언자에게 반항하지 않는 것이다.³⁵ 따라서 이러한 원칙은 주로 사람을 악과 지옥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지옥과 같은 나쁜 결말을 준비하는 많은 행동은 불신과 나쁜 품성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위선과 과시, 오만과 자존심, 시기와 질투, 인색함 그리고 선함을 막는 것과 같은 태도는 이슬람에서 처벌과 고통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슬림은 자신의 손을 통제하고 폭력, 절도 및 강탈과 같은 손으로 저지른 범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자신의 허를 보호해야 하며 말을 나르는 것, 비방, 험담, 거짓말, 위증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간음을 피하여 순결한 삶을 살 책임이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하디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길: **"지옥은 나프스(nafs; 영혼, 자아)이 원하는 것에 둘러싸여 있고 천국은 나프스(nafs; 영혼, 자아)가 싫어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³⁶ 그러므로 인류를 위해 지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평화로운 내세와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은 믿음, 인내, 확고함, 지혜, 선견지명, 미덕과 희망을 통해 열린다.

35 몸타히나 장, 60:12, 부카리, 디얏, 2.[Bukhari, Diyat, 2]

36 부카리, 리카크, 28.[Bukhari, Rikak, 28]

